

및 고전적인 참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이론은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산수적으로 표준적인 모형을 갖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다시 말해, ω -일관적임을 보임으로써) 이 논리학과 고전적인 참 이론이 “잘 맞음”을 보일 것이다. 비록 이 논리학은 단축(contraction)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커리의 역설을 피

하기 위해서 이는 필수적이며, 그 이외의 면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고 자연스러운 논리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rightarrow 는 충분히 끼워 넣어질 수 있는(fully embedable) 특성을 갖는다. 우리의 논리학은 비록 Q도 \neg 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는 우리 논리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82차】 유학의 생태주의적 전환

Wei-ming Tu(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우리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에는 세계적 종교 전통의 정신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회복’하고 분별력있게 ‘재수용’할 것이 요구되며, 역사적인 생명력을 가진 종교적 전통들은 항상 오랜 시간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 변화들은 경제, 정치, 사회 및 문화적 영향에 의해 생겨난 결과였다.

오늘날 모든 기축시대의 문명들은 현대의 다중적 도전에 대응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자체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점증하는 환경의 위기에 비추어 현대 세계의 발전 궤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향의 제시에 유학전통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학적 인문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려는 사조가 발생했다.

이 사조는 “유학 전통이 세계 사회에 끼칠 가장 중요한 공헌은 ‘天人合一’의 사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천과 人뿐만이 아니라 地까지도 포함하는 天地人 三才의 합일을 표방하는 인간·우주동형동성적(Anthropocosmic) 세계관으로서 다른 사상과 구별되는 유가적 사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회복’의 차원에서 인간·우주동형동성적 세계관은 天人의 상호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한 종교적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며, ‘재수용’의 차원에서 그것은 大地와의 호혜성을 강조함으로써 생태주의적 전환을 나타낸다. 대만의 錢穆(1895-1990)은 人心과

天道의 상호성을 주장했고 홍콩의 唐君毅(1909-1978)은 “내재적 초월”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의 본성이 하늘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초월성은 인간 전체가 공유하는 비판적 자각 속에 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북경의 馮友蘭(1895-1990)은 마르크스주의적 투쟁 개념을 거부하고 인간 세계 내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의 조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세 사람의 입장은 현대 신유학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이러한 생태주의적 전환은 중국과 세계에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

【제83차】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의 함정

이명현(서울대 철학과 교수)

전통적인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논쟁에서는 인식론적 문제와 존재론적 문제가 혼재된 채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존재론적 문제와 인식론적 문제를 구분할 것을 제

안한다.

논제 1(존재론적 논제): 나(나의 의식)로부터 독립된 그러그러한 대상(실재, 세계)이 존재한다. 논제 2(인식론적 논제): 진리는 그러그러한 실재와 문장(명제)에 대응